

# 여자축구대표팀 올림픽 티켓을 잡아라

## 아시아 최종예선 위해 내일 일본 오사카로 향해

지난해 월드컵을 통해 오랜만에 세계 축구를 경험한 여자축구대표팀이 사상 첫 올림픽 본선행을 목표로 다시 된다. 윤덕여(55) 감독이 이끌고 있는 여자축구대표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출격을 위해 오는 25일 결전지인 일본 오사카로 떠난다. 그동안 한국 여자축구는 올림픽 본선과 한 차례도 연을 맺지 못했다. 여자축구가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6년 애틀랜타 대회와 2000년 시

드니 대회에서는 직전 해 월드컵 성적을 기준으로 출전권을 배분한 탓에 본선행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최종예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2012년 런던 대회까지 꾸준하게도 전장을 던졌지만 늘 한 뼉 이상이 부족했다. 여자축구 불모지로 통하던 한국과 이미 세계에서 자리를 잡은 중국, 북한, 일본과의 격차는 생각보다 컸다. 이번에도 쉽지 않은 여건인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과 호주, 일본, 중국, 북한, 베트남 등이 풀리그를 갖는 최종예선에서 본선행 티켓은 상위 2개팀에만 돌아간다. 아시아에서만 5개국이 나섰던 지난해 캐나다 여자월드컵

본선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하다. 첫 상대인 북한과는 16번 싸워 14번(1승1무)이 나 졌다. 2005년 전주에서 열린 동아시아컵에서 박은정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둔 뒤 9연패 중이다. 16번 중 두 골 이상을 넣은 적이 두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완벽하게 당했다. 두 번째로 맞붙을 일본에도 4승8무14패로 크게 밀린다. 지난 8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동아시아컵에서 2-1로 이기기는 했지만 당시 일본의 전력은 100%가 아니었다. 호주(2승1무11패)와 중국(4승5무24패)전에서도 재미를 못 보기는 마찬가지였다. 베트남과는 8전 전승을 구가 중이다.

결국 태극 낭자들의 리우데자네이루행은 초반에 얼마나 승점을 쌓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북한, 일본을 만나 선전할 경우 흐름을 탈 수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일찌감치 손을 봐야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윤 감독은 "그동안 북한전에서 많은 패배의 아픔이 있었지만 경기력은 많이 올라왔다. 자신감을 갖는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칭 스태프가 각 팀들의 장단점을 영상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선수들에게 알려줘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김민근기자

## 세계유소년·청소년펜싱선수권대회 전주제일고 한이현·우석대 김소정 출전

2016세계유소년·청소년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로 전주제일고 한이현(2학년)과 우석대 김소정(1학년)이 선발된 세계의 유망한 선수들과 경쟁하게 됐다. 한이현과 김소정 선수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선발전에서 각각 여자플러레 유소년부 3위와 청소년부 2위를 차지하며 출전권을 획득했다. 출전권이 3위까지 주어진다선 선발전 규칙에 따라 4강에서 한국체대 장하림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오른 김소정 선수는 일찌감치 출전권을 확보했으나, 4강에서 패한 장이현 선수가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중경고 이희진 선수와 3. 4위전을 치른 장 선수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13대 13 상황에서 마지막 연속 2득점을 올리며 15대 13으로 3위를 차지했다. 두 선수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브르주에서 열리는 2016세계유소년·청소년펜싱선수권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하게 된다.

/김민근기자

# 겨울스포츠 제전 전국동계체전 개막...4일간 열전 돌입

## 전국 17개 시·도 3980명 참가 강원 용평 리조트 등서 진행

전국 겨울스포츠 제전인 전국동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오전 10시 강원 용평리조트에서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개막을 알렸다.

이날 개최식에는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을 비롯해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기단체장, 맹승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대회기와 각 선수단의 시·도기 입장을 시작으로 맹승규 경제부지사의 환영사, 대회기 게양 김정행 회장 개최사, 김종덕 장관 축사, 선수·심판대표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행 회장은 "이번 체전을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대회 운영 노하우와 운영 능력을 점검하고, 선수들은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동계체전은 서울, 강원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입원 등 총 3980명이 참가한다.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용평리조트(알파인), 알펜시아리조트(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목동아



23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식에서 선수단 대표가 선서를 하고 있다.

이스링크(아이스하키), 경북 의성결빙장(컬링), 황계 천변(산악)에서 종목별 경기가 열린다.

빙상과 스노보드 경기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태릉국제스케이팅장(스피드), 인천 선학빙상장(쇼트트랙), 성남 탄천빙상장

(피겨), 하이원 리조트(스노보드)에서 사전경기가 진행됐다.

/김민근기자

한국 종합격투기 대표 스타인 서두원 선수가 오는 3월5일 서울 삼성동 삼유센터에서 열리는 '스파이더 인비테이셔널 브라질리언 주짓수 챔피언십 대회'의 1회전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스파이더 인비테이셔널 브라질리언 주짓수 챔피언십 대회'는 체중 76kg 이상과 이하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서두원 '스파이더 브라질리언 주짓수 챔피언십' 참가

1회전에서 두 그룹의 4강 토너먼트 진출자를 확정하고, 4강 진출자들은 가을에 예정된 2회전에서 그룹별 우승과 랭킹포인트 전 우승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서두원 선수는 팀 스파이더의 일원으로 이번 대회를 디렉팅하고 초청선수로도 참여해 주짓수 스포츠 시연을 한다. 대회 주관사인 스파이더(<https://go.gd/QzaDwk>)를 통해 무료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는 국내 주짓수 대회 사상 최고 상금이 걸려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1회전 800만원, 2회전 1300만원 등 총 상금 2100만원이다. 역대 최고 상금만큼 주짓수 선수들과 동료인들의 뜨거운 관심은 물론 실력자들의 화려한 대결이 접전이다.

/김민근기자

## 맨유, 3부 리그 팀 꺾고 FA컵 8강 합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 대열에 합류했다. 맨유는 23일 오전 4시45분 영국 슈루즈버리의 그린호스 미도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루즈버리 타운과의 2015~2016 FA컵 16강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상대는 3부 리그(리그1) 팀이었음에도 방심은 없었다. 맨유는 앤서니 마셜, 후안 파타, 모건 슈나이더린, 달레이 블린트, 펠피스 데파이 등을 선발로 내보내며 촘촘한 수비드를 선보였다.

전반 37분 수비수 크리스 스몰링이 맨유의 승문을 텄다. 스몰링은 슈나이더린의 패스를 골로 연결지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마타가 추가골까지 신고했다. 한결 여유가 생긴 맨유는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나갔다. 후반 16분 제시 링가르드가 안드레 에레라의 패스를 받아 썬키포를 꽂아 넣었다.

맨유는 모든 공식 대회를 포함 4경기 만에 승리를 맞았다. 특히 최근 2연패를 끊어내고 분위기 반전의 초석을 마련했다.

맨유는 무려 12년 만에 FA컵 우승에 도전한다. 통산 11차례 FA컵을 들어올렸으나 지난 2003~2004시즌이 마지막 우승이다.

/김민근기자

## 국민생활체육회, 내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국민생활체육회(회장 강영중)는 25일 오후 2시 서울 관진구 위귀원호텔 3층 코스모스홀에서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임원 변동사항과 자체감사 결과, 국민생활체육회-대한체육회 통합추진 경과 등이 보고된다.

▲2015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체육단체 통합 현안에 관한 건 등도 상정된다.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은 17개 시도생활체육회 및 전국종목별연합회에서 각각 75명씩 추천받아 총 150명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는 대한체육회와의 체육단체 통합 전 개최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마지막 대의원총회이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활약을 느끼고 한국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